

로마를 살린 다락방 후대 마가 복음으로 여는 마가복음

이사야 53:4-6, 마가복음 16:14-18

정운돈 목사님

오늘은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언약을 나누고자 한다. 마가복음은 짧다. 16장까지밖에 없다. 여러분이 이번 주에 읽고 묵상하면서 은혜를 받으시기 바란다. 우리가 설교는 많이 듣는데 성경은 많이 안 읽는다. 성경을 직접 읽으면 굉장히 다르다. 설교를 준비할 때, 나는 그 성경을 몇 번이고 반복해서 읽고 묵상한다.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복음서 하나만 주셔도 될 것 같은데 사복음서를 주셨지 않나. 이유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서론 : 마가복음의 의미와 기록 배경

(1) 마태는 복음을 잘 깨닫고, 자신의 천명, 소명, 사명을 깨달았다.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을 기록했다. 유대인에게는 이 족보가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약속했던 다윗의 후손이 바로 이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말씀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마가복음은 그럴 필요가 없었다. 이방인과 로마 사람을 위해서 쓴 책이었기 때문이다. 누가는 어떤가. 자기의 전문성,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문서를 기록해서 남긴 것이다. 복음을 깨닫고, 내가 해야 할 일을 복음으로 재해석해서 천명, 소명, 사명을 감당한 것이다. 요한복음은, 요한이 예수님이 진짜 구주시고 하나님이심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것을 후대와 성도들을 위해서 정리한 내용이다. 그들은 이 복음서를 기록하는 축복을 받은 것이다. 마가는 하나님이 주신 나의 복음, 나의 사명, 나의 진도 현황을 잘 깨달았기 때문에 이 복음서를 기록했다는 말이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과 메시지가 있을 것이다. 나의 복음을 적어야 한다는 것이다. 성경책을 새로 쓰라는 말이 아니다. <윤돈복음> 같은 것 만들라는 말이 아니다. (웃음) 그러나 우리는 사도행전 29장, 30장을 써나가고 있다. 이번에도 우리가 55개 국에서 17,000명이 모여서 세계렙넌트대회를 치렀다. 20년 전에 시작할 때에는 상상도 못 하는 일을 하게 되었다. 스위스에서 기독교선교방송 팀들이 와서 취재를 하면서, 이런 컨퍼런스는 처음 봤다고 했다. 젊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런 큰 집회를 어떻게 이렇게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이 정도 하는 단체는 전부 장사하는 단체다. 기업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벌이는 행사다. 그런데 이것을 복음 때문에 하는 것이다. 아무도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응답을 우리가 이미 받고 있는 줄 믿는다. 그런데 이 응답의 흐름을 붙잡고, 나를 버리지 못하면, 복음보다, 하나님이 주신 미션보다 '나'가 앞서게 되면, 다 받아 놓고도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실패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복음, 나의 복음을 붙잡아야 한다. 세계복음화 메시지의 흐름 속에서 나의 것을 찾아야 한다. 여러분은 류목사님, 최목사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시스템을 주신 것이다. 이기는 자는 보좌에 앉게 할 것이라고까지 말씀하셨다. '오직 예수' 하는 사람이 그 보좌에 앉게 될 것이다.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이다. 어렵지 않다. 은혜받은 우리에게는 쉬운 것임을 믿으시기 바란다. 오직 복음 때문에 자기 목숨을 걸었던 인물들이 마가와 초대교회 사람들이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언약의 배턴을 이어서 천 년을 가야 한다. 복음을 정확하게 깨달아야 하지만, 나에게 적용해야 한다는 말이다. 삶에 이것을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는 어릴 때 아버지에게 훈계를 받으면 기분이 좋지 않았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가 깨달았다. 잠언 13:1을 보면,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않는다'고 했다. 요즘 교육은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후대를 다 망치고 있다. 성경은 훈계를 하라고 말씀한다. 사랑의 매가 맞다면 죽지 않을 정도로 때리라고 했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고도 했다. 세상 교육이 성경과 맞지 않으니가 청소년들을 다 망치고 있다. 복음만이 기준임을 믿으시기 바란다. 잠언 15:5에, '아버지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이 구절을 읽으니까, 미련한 자가 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여러분이 강단에서 나오는 훈계를 달게 받으셔야 한다. 귀에 쓰게 들리지만, 이것은 영혼을 살리는 것이다. 강단에서는 무슨 말이라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 말을 받아야 할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까지 이야기하셨다. 어떤 말도 달게 받을 수 있는 성숙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한다. 혹시 억울한 일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으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일이 될 것이다. 지혜롭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하면, 징계를 받아도 반성하지 못하고 핑계를 댈다. 그런 사람은 큰 인물이 될 수 없다. 잠언 19:20에, '너는 권고를 받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네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이것은 복음 외에, 삶에 대한 지혜의 말씀이다. 요셉이나 다니엘에게는 이 지혜가 있었다. 초대교회 중직자들도 성령충만과 함께 지혜충만을 누렸다. 이것을 누리시기를 축원한다. 마가는 이렇게 나의 복음을 찾아내었다는 것이다. 나도 이렇게 적용하다가 목사가 되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를 변화시키는 승리의 메시지를 붙잡게 되시기를 바란다. 그렇게 해서 현장에 가서 했는데 현장의 주역이 되는 것이다. 아무리 그리스도 말을 해도 그리스도처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아닌가.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했다. 그분이 그리스도다. (2)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마가는 마가다락방을 헌신해서 내놓은 성도의 자녀로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헌신한 램넌트였다. 그런데 성경에 마가다락방이라는 말은 안 나온다. 그러면 우리가 다락방이라는 말을 쓰는 게 잘못된가? 아니다. 마가의 집, 큰 다락이라는 표현이 나오기 때문이다. 성경에는 삼위일체라는 단어도 없다. 정황 속에서 찾아내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행하셨던 마가의 다락방과, 초대교회가 모였던 마가의 다락방은 같은 장소인가? 또,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마가 요한의 집은 같은 곳인가? 성경에는 확실한 증거는 없다. 그러나 정황을 볼 때, 예수님이 성령이 임할 장소를 직접 예비하셨음을 믿지 않아야 할 이유도 없다. 마가의 집 다락방은 굉장히 큰 장소였다. 이곳을 소유했다는 것은 마가의 집이 부자였을 것이라는 의미다. 또, 마가라는 이름은 로마식 이름이다. 초기 교회를 보면 마가는 베드로의 통역관이었다. 이는 마가가 로마 유학파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이다. 이번에도 55개국 사람들을 위해서 통역사역을 했는데, 우리 램넌트들이 통역을 얼마나 잘 하는지 모른다. 더 놀란 것은, 아프리카 분들, 일본 분들이 한국어어를 얼마나 잘 하는지 모른다. 사도하라 목사님 같은 분은 일본 사람인데 한국어로 메시지를 하면서 한국어로 한국 사람들을 웃기기까지 하더라. 마가가 그런 엘리트였을 것이다.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 모든 상황을 잘 기록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되고 있다. 마가는 유력한 부자집 자제였을 것이며, 선교활동에 함께 할 정도로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마가는 바울 팀과 함께 다니다가 중간에 그만두고 돌아와 버린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자기는 베드로 옆에서 수행했던 인물인데, 갑자기 특 튀어나온 바울이라는 사람이 최고의 사도인 것처럼 다리고 있는 것이 기분이 안 좋았던 것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마가는 깨닫게 된다. '하나님이 선택하셨구나.' 이렇게 해서 마가는 바울에게, '그는 나에게 유익한 자'라는 칭찬을 받게 된다. 여러분이 혹시 잘못 하셨더라도,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돌아와서 흐름을 따라가게 되시기를 바란다. 부자집 자녀인 마가가 유학을 하고 돌아온 후, 삼촌인 바나바와 사도 바울과 선교를 떠나게 되었고, 그 후에는 베드로의 통역관이자 수행자로서 사역하다가 마가복음까지 기록하게 되었다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설명일 것이다.

(3) 그러면 마가복음의 특징은 무엇이었는가? 로마인,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쓴 복음서이다. 그래서 진행이 굉장히 빠르다. 여러분이 현장에서 사역을 할 때도 시간표에 맞게, 대상자에 맞게 할 필요가 있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어떤 것은 자세히 적었는데, 어떤 것은 빨리 설명하고 지나간다. 마태복음의 내용의 대부분은 유대인을 책망하는 것이다. 요한복음은 또 전혀 다르다. 마가복음은 짧게 짧게 설명하고 지나간다. 여러분은 누구를 만나도 메시지를 증거할 수 있고 포럼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시기를 바란다. 마가복음의 내용을 보면, 치유하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 1장부터 나오고 있다. 귀신을 쫓아내시고, 나병 환자를 치유하셨으며, 중풍병자를 치유하셨다. 마가복음 1장부터 바로 치유가 들어가는 것이다. 이 마가복음은 사복음서의 뼈대를 이루는 복음서이기도 하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마가복음이 복음서 중 가장 먼저 기록되었을 것이라고 보는데, 이는 마가가 베드로의 통역관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나는 30개 나라에서 사역을 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중요한 현장 제자들과 소통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통역자들이다. 이게 통해야 깊은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처음 사역을 하러 가면 먼저 통역자들의 실력부터 테스트를 한다. 남미에 갔을 때는 참 어려웠다. 한국어-영어-스페인어-원주민어로 4중 통역을 해야 했다. 필리핀에서도 그랬다. 그러니까 한 마디를 한 다음에 다음 말을 해야 하는데 잊어버리는 문제가 생긴다. (웃음) 전 세계에 한국인들이 안 간 곳이 없다. 그래서 고려인들이 감사하고 조선족들이 감사하다. 그들이 없으면 선교를 못 하는 것이다. 마가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느낄 수 있다. 그런 제자들로 여러분이 여러 분야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한다.

1. 현장을 변화시키는 마가복음의 말씀

마가가 로마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마가복음을 전달했는데, 이것은 어떤 말씀이었기에, 그 현장을 변화시킬 수 있었는가? 대표적인 요절을 보자.

(1) 마가복음 1:10이다. 마가는 이 구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면서 마가복음을 시작하고 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①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떻게 또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는가? 삼위일체라는 부분이 이 부분에서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이것은 신분과 위치를 말하는 것이다. 사람은 모두 가치가 동일하다. 인간으로서 동일한 것이다. 소는 소를 낳는다. 그러면 소와 송아지는 동등한 것이다. 말이 말을 낳는다. 인간은 인간을 낳는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낳는 것이다. 그런 원리다. 같은 격이라는 말이다. 왕의 자녀는 왕족의 신분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는가? 그런데 왕이 왕의 자리를 물려주면 아들이 왕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도 모든 권한을 아들에게 맡기셨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또 아버지께 순종하시고 기도하셨다.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이신 하나님의 관계였다. 이것을 로마 사람들은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 귀족, 노예의 신분이 무엇인지를 잘 알았기 때문이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② 그러면 그분이 왜 그리스도로 오셨는가? 마가복음에는 많은 기록들이 기록되어 있다. 여러분, 귀신을 이긴 사람을 본 적이 있는가? 물 위를 걸어서 사람을 본 적이 있는가? 오병이어서 오천 명을 먹이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을 본 적이 있는가? 오직 예수님만이 이 모든 일을 행하셨다. 그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그런 그분이 그리스도로 오셨다.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길 되신 참 선지자로,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참 제사장으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기 위한 참 왕으로 오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로서, 우리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란다. 우리가 살면서 구원의 은혜를 받았지만, 길이 막힐 때에는 그리스도께서 나의 길, 나의 진리 되심을 믿고 선포해야 한다. 적용해야 한다. 길 되신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적용해야 한다. 죄를 지었을 때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모든 죄를 용서하신 그리스도를 적용해야 한다. 나에게 다른 사람이 지은 죄를 두고 용서하도록 적용해야 한다. 왕이신 그리스도를 적용해야 한다. 하나님이 이 시대, 말세지말에 이 나라와 이 시대를 쓰실 것을 믿는다. 의인 열 명, 의인 한 명이 있으면 그 사람 때문에 이 나라를 쓰실 것이다. 그런 후대가 한 명만 일어나면 바벨론을 뒤집을 수 있다. 그게 우리의 목표다. 많은 숫자가 필요한 게 아니다.

③ 예수님은 오직 한 분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수백 년 전부터 그분에 대한 사실이 전부 먼저 예언되었다. 세례요한이 먼저 와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할 것이라는 것까지도 예언되었다. 그분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이다. 유대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세례요한이다. 세례요한은 무시할 수 없는 인물이었는데, 그 이어서 제사장이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이었는데도, 자신의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광야에서 살면서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살았으니, 굉장한 존경을 받았던 것이다. 그랬던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메시아라고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너무 중요한 사역을 했던 것이다. 이사야서에 보면 그분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고난당할 것인지가 예언되어 있다. 이것은 역사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 성경을 보면 볼수록 이런 이야기들이 많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이다. 워낙 우리가 공부를 안 해서 잘 모르고 있는 것일 뿐이다.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은 인류에게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도 미리 말씀하고 있다. 그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다.

(2) 또 하나의 구절은 마가복음 10:45이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같이 최고로 높은 지위에 계신 분이시다. 그런데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 희생제물이 되시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종으로, 노예로 표현하고 있다. 로마는 다른 나라를 정복하면 그 나라 사람들을 노예로 삼았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노예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다.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는가. 모든 사람들의 생각을 다 무너뜨린 것이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자유자나 종이나 다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같은 신분인 것이다. 복음 안에서 서로를 섬겨야 하는 것이다. 이 문화가 세계에 흘러가야 한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법이 전 세계에 흘러가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믿으시기 바란다.

2. 초대교회와 램넛트 마가가 로마를 복음화한 방법

큰 두 번째로, 그러면 마가는 어떻게 로마를 복음화했겠는가?

(1) 종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붙잡고 로마를 살렸다. 로마는 틀린 것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려고 했다. 그러나 마가는 복음의 서밋, 영적 서밋이 되어서 로마를 정복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 다른 방법이다. 하나님의 방법은 돈으로, 권력으로, 무력으로 세계를 정복하는 것이 아니다.

① 여호와와 의 신으로 감동된 요셉이 애굽을 정복했다(창41:38).

② 그리스도의 피 제사를 가지고 흑암이 무너지고 사람이 살아나게 되었다(출3:18-20). 이것이 하나님의 다른 방법이다. 돈을 뿌리는 것이 아니라 피를 뿌린 것이다.

③ 사두마의 말이 한 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삼상3:19).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명령하는 대로 되게 되어 있다. 아담이 원래 그랬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이렇게 되게 되어 있다. 복음이 회복될 때, 우리가 기도하고 선포하고 표어로 삼는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 바란다.

④ 여호와와 신이 다윗에게 크게 임했다고 했다(삼상16:13). 실력이 아니라 성령이 모든 위정자들에게 충만할 때 이 나라는 되게 되어 있다. 여호와와 신에 충만한 지도자들이 일어나야 한다.

⑤ 그래서 엘리사는 다른 것이 아니라 감정의 영감을 구했다(왕하2:9-11).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다른 방법이다.

⑥ 그루터기, 램넛트다(사6:13). 다 베임을 받았는데 남은 자 그루터기 램넛트가 있었다. 생명 가진 자다. 천명, 소명, 사명 가진 자들이다.

⑦ 오직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다(행1:8). 이것이 마가와 초대교회가 로마를 살린

하나님의 다른 방법이었다.

(2) 성령충만의 비밀을 붙잡고 로마를 살렸다.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하시니까 어떤 결과 나왔는가? 교회가 탄생한 것이다. 세 가지 교회가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교회를 통해서 로마를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것이다. 이것이 모이는 교회다. 흠여지는 교회, 현장교회다. 다락방이고 지교회다. 집에서 모이는데, 카타콤에서 모이는데 어떻게 잡겠는가. 이 교회가 결국 영원한 교회가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천국이다. 이 방법으로 마가와 초대교회는 강대국과 다문화, 다민족을 살린 것이다.

(3) 전도 집종의 비밀을 가지고 로마를 살렸다. 하나님에 대한 집중이 중요하다. 나도 어릴 때를 돌아보면 초등학교 때 제일 집중을 잘 했던 것 같다. 거기에서 변하면 안 된다. 늙으면 안 된다. 익어가야 한다. 집중해야 한다. 원망, 불평, 상처, 불만이 24시가 되면 안 된다. 말씀에 집중하고, 나에게 주어진 우선순위에 집중해야 한다. 놀러가는 것, 거짓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집중하면서, 우선순위, 내가 꼭 해야 할 것은 집중을 안 하고 있지 않는가. 집중할 수 있는 은혜를 받으시기 바란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집중을 안 할 수가 없었다. 핍박시대였기 때문이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시대 살리는 도전을 해야 한다. 세상과 불신자들은 할 수 없기 때문이다.

① 그래서 성도들과 램넛트들은 24시 보는 것, 듣는 것을 복음으로 바뀌어 한다. 복음으로 재해석해야 한다. 그래서 사람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사회를 살려야 한다. 불평, 불만을 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강단메시지를 붙잡고,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가 해야 할 미션을 붙잡고 도전하면 된다. 그 힘까지도 하나님이 주실 줄 믿는다. 이번에 세계램넛트대회를 하면서 우리 청년들이, 집사님들과 램넛트들이 게이트 엑스포를 했는데, 여기에 몇 천 명이 오지 않는가. 그러니까 몇 달 켜나 집중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거의 노동을 해야 하는 일인데 거기에 우리 램넛트들이 많았다. 선배들이 거기에서 일하니까 후배들도 다 가서 하더라. 하나님이 그렇게 예비해두시고 환경을 조성하신 것이다.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환경을 주셨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을 믿으셔야 한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이다. 믿음이 필요하다.

② 이때 성도에게만 주시기로 약속된 것이 발견된다. 세상이 할 수 없는 일이다.

1)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삶을 살게 된다.

2) 아무도 갈 수 없는 곳에 가게 된다. 그것이 다니엘과 세 친구였다.

3)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된다. 그것이 다윗이었다.

4) 아무도 고치지 못하는 것을 영적으로 치유하는 것이다. 귀신들린 사람을 누가 고칠 수 있는가. 우리는 무당에게도 가서 복을 전하고 치유하지 않나. 약을 먹인다고 해도 영혼은 치유되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는 복음으로 현장과 영혼을 치유하고 있다. 약도 먹어야 한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 가정문제, 부부문제, 자녀가 방황하는 문제를 어떻게 약으로 치유하겠는가. 복음으로만 가능하다. 여러분만이 할 수 있다.

5) 그래서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전쟁과 제양까지 우리가 막는 역사가 우리에게 체험될 것이다.

③ 그래서 우리는 깨닫고 그릇만 준비하면 된다. 메시지가 이렇게 쥘이다보니 62가지까지가 나왔다. 나를 살리는 62가지 행복, 교회를 살리는 5가지 행복, 모든 만남과 사람을 살리는 9가지 행복, 학업을 살리는 7가지 행복, 세계를 살리는 20가지 전도의 전문성과 훈련에 집중하고 올 인하여 유일성의 응답을 받게 되시기를 바란다.

결론 : 마가복음을 통해서 붙잡아야 할 세 가지 미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그러면 마가복음을 통해서 붙잡아야 할 미션과 메시지가 무엇인가?

(1) 집중을 통해 산업과 학업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체험할 정도로 메시지에 집중하시기 바란다. 마가는 메시지의 흐름에 집중하다가 사도보다 먼저 마가복음이라는 시대적인 작품을 남겼다. 오늘에 집중하는 것이 이런 응답을 받는 길이 될 것이다.

(2) 영적 집중을 체험할 만큼 깊은 묵상을 해 보시기 바란다. 깊은 기도로 행복을 체험하는 것이다. 1주일에 한 번만 해도 성공한다. 하루에 한 번만 해도 성공한다. 그런데 하루에 세 번만 해 보라. 모든 것을 하나님 바라보면서 감사해 보라. 응답과 해답이 발견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발견된다. 이게 깊은 기도다. 오늘의 기도다.

(3)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증거할 정도로 하나님이 주신 나, 나의 것, 나의 현장을 날마다 찾아보라. 이것이 오늘의 전도다. 이번 주간에 마가복음의 말씀과 강단메시지를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원한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마가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발견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한주간동안 강단메시지와 성경 말씀을 묵상하다가 내가 도저히 안 되는 부분을 찾고, 그 응답 속에서 행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지역과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살릴 수 있는 모든 성도들과 후배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